보도시점 2025. 9. 19.(금) 11:00 < 9.20.(토) 조간 > 배포 2025. 9. 19.(금)

한(韓)-우크라이나 경제협력 방안 논의

(韓)산업부 1차관-(우)지역사회·영토개발부 차관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 문신학 제1차관은 9.19(금), 서울정부청사에서 마리나 데니슉 우크라이나 지역사회·영토개발부 차관과 면담을 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.

* 데니슉 차관은 코발추크 차관, 스흐물린 재건청장 등과 함께 국토부 초청연수 계기 9.15(월)~9.22(월) 일정으로 방한

문 차관은 3년 이상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지역사회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, 한국 역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성장한 경험이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.

아울러 문 차관은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플랜트, 인프라 건설 및 전력기자재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와 협력 잠재력이 크며, 세계적인 곡창지대를 보유한 우크라이나가 인공지능(AI) 등 첨단 성능을 탑재한 한국산 농기계와 협력한다면 농업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.

이에 대해 데니슉 차관은 한국의 성장경험이 우크라이나의 재건 및 향후 발전 경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의를 표했다. 또한 정부 간(G2G) 협력 뿐 아니라 민간 간(B2B) 협력을 통해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하며, 특히 한국이 추진 중인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인 마이크로 그리드 개발 지원 프로그램 등은 지역사회 재건의 핵심 인프라라며 높은 관심을 표했다.

문 차관은 “우크라이나에 하루빨리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”며 “이번 면담을 계기로 종전 이후 여건이 마련된다면 경험과 기술력이 풍부한 우리 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측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	책임자	과 장	정근용	(044-203-5680)
		담당자	사무관	윤가영	(044-203-567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PEC 2025 KOREA 10.27.~11.1. 경주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